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리상이 응축된 인민의 새 거리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준공레프를 끊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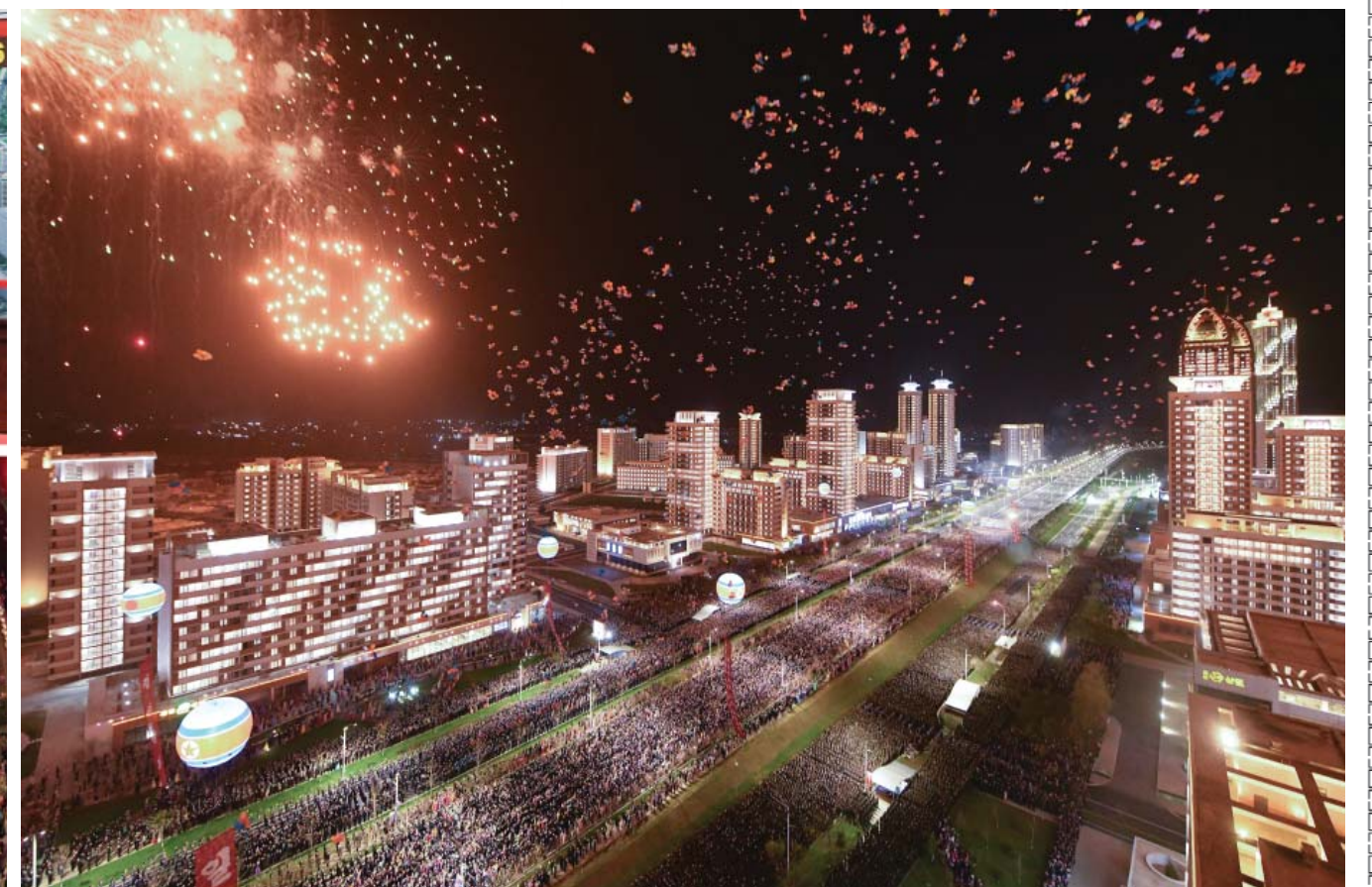
향도의 억센 힘으로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지위를 세기의 단상에 올려세우고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려정우에 사회주의발전과 미래의 상징으로 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다.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평양시 살림집전망목표에 따라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가까이에 위치한 화성 지구에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게 될 사회주의번화가,

인민의 새 거리가 보란듯이 건설되였다. (2면으로 계속)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리상이 응축된 인민의 새 거리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준공레프를 끊으시였다



(1면에서 계속)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운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군민건설자들은 수도 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영광과 긍지를 기적창조의 열정과 혁명적기백으로 승화시켜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하나의 현대적인 도시구획건설을 성과적으로 계속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인민의 환희를 분출시키며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4월 16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을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의 요구와 리의를 실현하는것을 당과 국가의 최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시며 사회주의리상사회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세월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열화같은 사랑과 정으로 인민의 운명과 행복, 미래까지도 다 맡아안아 보살펴주는 위대한 어머니당,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다함없는 고마움이 준공식장에 뜨겁게 차넘치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화성지구 1단계 살림집은 강대한 우리의 힘이 무엇을 위해 더욱 강해져야 하고 우리의 사회주의리상이 어떤것이며 우리 국가, 우리 위업은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하는것을 응변으로 실증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기념비라고 말하였다.

그는 금수산태양궁전일대를 인민의 행복과 사회주의문명이 개화만발하는 리상향으로 전변시킬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의 두번째 단계로 화성지구에도 하나의 대건설전역을 전개하도록 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목표와 건설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현대도시의 표본구역으로 되도록 공사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건설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 우리 인민들에게 가장 존엄높고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고의 경의와 가장 열렬한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는 당의 결심을 항상 절대지하며 무비의 대담성과 적극성, 희생적인 투쟁으로 완벽하게 실천하는 우리 시대 열혈의 애국자들, 창조의 영웅들인 군민건설자들에 의하여 우리당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요고지들에 강력하고 고무적인 전진의 동력이 배가되고 있으며 공화국창건 75돐과 전승 70돐을 맞는 올해를 의의깊게 빛내일 종대한 성과가 마련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화성지구 1단계 살림집의 준공은 온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혁명의 새 승리과 눈부시게 번영할 태일을 확인하는 굳은 마음을 심어주고 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웅대한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해줄것이라고 하면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시 휘부의 붉은 기발을 더 높이 추켜들고 2단계 건설의 완공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호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준공레프를 끊으시였다.

절출한 인민의 령도자께 드리는 최대의 영광과 흠모의 정을 담아 우렁찬 《만세!》의 함성과 환희의 축포가 또다시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뜻깊은 4월의 하늘가로 날아올라 화성지구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에

손저어 답례하시며 군민건설자들과 선경거리의 주인이 된 근로자들을 따스이 축복해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만나주시고 단 두해사이에 2만여세대의 살림집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서 주력이 되고 기치가 되어 수도 평양에 변혁의 새 전기를 펼쳐나가는 군민건설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국가의 수도에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당과 국가가 최중대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숙원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우리 당의 건설정책과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웅장하게 꾸려나갈 구상을 다시금 피력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모든 군민건설자들이 로동당시대의 부흥과 발전의 새 력사를 만들어나가는 보람찬 창조자, 개척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수도뿐 아니라 지방건설에서도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감으로써 문명한 사회건설을 다그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이 바라는 일, 당의 결심이라면 무조건 빛나게 실천하는 강력한 건설대군이 있어 우리 당의 건설정책이 완벽하게 철저히 집행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온 나라 인

민의 축복속에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하게 된 근로자들이 새 살림집에서 자자손손 행복하며 화목하고 보람넘친 생활을 누려가기를 축원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눈부신 전변과 기적적성과들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용융한 전진과 필승불패성을 만방에 떨치시며 사랑하는 우리 인민이 만복을 누려갈 강국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르며 격정의 환호를 올리였다.

준공식에 이어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참가자들은 황홀한 불야경을 펼친 화성지구의 새 거리를 돌아보았다.

150여정보의 면적에 다양한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봉사당, 시설물들이 편리하게 배치된 현대적인 살림집구획에서 그들은 세월을 주름잡는 평양속도로 비약하는 주체건축의 발전상과 불굴의 강인성, 진함없는 창조정신으로 또 하나의 기념비를 훌륭히 일떠세운 군민건설자들의 애국충정을 뜨겁게 절감하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것을 불변의 본태, 철석의 신조로 삼고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진정한 인민의 당,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이 땅위에 보다 희한한 변혁적실체들을 끊임없이 안아올릴것이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사이의 체육경기를 관람하시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사이의 체육경기 재시합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경기를 관람하시였다.

경기장이 들썩하게 회열에 넘쳤던 2월 명절에 이어 4월의 봄명절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또다시 뜻깊은

체육문화행사를 하게 된 내각과 국방성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경기장에 나오시자 전체 선수들과 관람자들이 터치는 열광의 환호성이 화창한 봄하늘을 진감하였다.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내각 성원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경기를 관람하

였다.

국방성 지휘성원들과 각급 부대의 장병들, 군사교육단위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보았다.

먼저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간의 축구경기가 있었다.

열기던 응원속에 랑뎀 선수들은 치렬한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득점수가 1:1로 비긴 가운데 11m차기로 승부를 갈랐다.

관람자들모두가 손에 땀을 쥐게 한 경기는 국방성팀이 내각팀을 5:3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다.

축구경기에 이어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사이의 바둑당기경기가 진행되였다.

바둑당기경기에서도 국방성팀이 내각팀을 2:0으로 이겼다.

시상식이 참가자들의 박수갈채속에 진행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꿈만같은 행복의 시간을 보낸 격정과 기쁨을 비상한 각오와 열정으로 분출시켜 우리 국가의 융성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관건적인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올해에 당과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성과들을 줄기차게 안아올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서 국가 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4월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현지에서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의 지도간부들이 영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우주과학연구원과 우주환경시험기지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나라의 우주산업을 전망적으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우주정책이 제시한 당면한 과학연구사업진행정형과 최근기 우주과학연구부문에 달성된 핵심기술개발 및 생산추진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국가우주개발국이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제6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우주정책의 당면한 목표와 전망적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우주과학기술연구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과학기술에 의하여 추동되고 담보되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하는데서 우주산업의 발전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우주분야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우주산업장은 세계적경제 및 과학기술강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지름길개척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종합적국력의 시위로 된다고 하시면서 독자적인 우주개발에 지속적인 박차를 가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을 힘있게 주도할수 있는 당당한 우주산업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우주분야의 가속적발전을 이룩함에 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국가의 전략적의의 견지에서 선진적이며 가치있는 우주개발계획들부터 선행시켜 실행해나가며 성과를 부단히 확대장성시켜 궁극적으로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일떠세우는 것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라고 천명하시였다.

특히 기상관측위성, 지구관측위성, 통신위성보유를 선점고지도 정하여 재해성기후에 철저히 대비하고 나라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리용하며 인민경제의 과학적발전을 강력히 추동할수 있는 가능성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각급 교육 및 과학연구부문의

실용적인 각이한 용도의 위성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체계를 세우고 국가적투자를 늘여 우주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위성개발이 가속화되는데 맞게 표준화된 믿음성 높은 운반로켓생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며 우주강국건설의 리상과 포부가 반영된 위성발사장들을 훌륭히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미래가 핵항공모함과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각이하고도 방대한 전략장비들을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 상시배치수준으로 전개하면서 남조선을 침략의 전초기지로, 전쟁화약고로 전변시키고있는 현실태와 련합준비태세의 구실밑에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위협하는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행동이 보다 로 골화될수 있는 전망적우려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국방력발전 5대중점목표에 적대세력들의 군사적기도와 움직임을 상시장악하기 위한 우주정찰능력의 보유를 우리 국가의 방위력건설의 가장 중차대한 선결적과업으로 제시하였다고 상기시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군사정찰위성보유가 대단식으로 확장되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적위협과 도전으로부터 국가의 안전환경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인민의 안녕과 발전리익을 고수하며 상황에 따라 선제적인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한 자위적국방력강화에서 노는 역할과 전략적가치와 의의에 대하여 다시금 밝히시면서 이를 획득함은

최근 조성된 조선반도안전환경의 요인으로 보나 전망적인 위협을 관리하는 견지에서 보나 절대로 포기할수도, 놓칠수도, 바꿀수도 없는 필수불가결의 우리 무력강화의 선결적과업으로 되며 철저히 우리의 국가주권과 정당방위권에 속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미군과 남조선이 올해에 들어와 가장 적대적인 군사적 표현을 내뱉으며 명백한 행동으로도 《확장억제력제공》과 《한미동맹강화》의 명목밑에 반공화국군사태세를 더욱 강화하려고 획책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가 현재와 미래의 우려스러운 안보환경에 상응한 군사적억제력을 키우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여기에서 군사정찰수단을 획득하고 운용하는것은 우리의 각이한 전쟁억제수단들의 군사적효용성과 실용성제고에서 그 무엇보다 중차대한 최우선과업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4월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안에 발사할수 있도록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준비를 다그쳐 끝내며 앞으로 련속적으로 수개의 정찰위성을 다각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튼튼히 구축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고무를 받아안은 국가우주개발국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우주강국건설구상을 완벽히 실천으로 충직하게 떠받드는 우주정복자가 되여 공화국의 자존과 권위, 주체조선의 위대한 국력을 우주만리에 보란듯이 울려세울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해외동포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

재일동포들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재일동포들이 뜻깊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태양상에 14일 총련중앙일군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영성을 기원하여 삼가 인사를 드렸다.

이날 중앙단체일군들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태양상에 꽃다발들을 드리고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11돐경축 재일본조선인 중앙대회가 14일 일본 도쿄에 있는 총련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장과 박구호 제1부부장 겸 조직국장, 남승우부부장, 배진구부부장 겸 사무총국장, 조일연부부장, 송근학부부장 겸 교육국장, 서충인부부장 겸 국제통일국장, 강추련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리명유 총련중앙간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 국장들, 시학, 교문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 총련본부 위원장

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었다. 박구호 제1부부장 겸 조직국장도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만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11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하며 영생기원의 인사를 삼가 드렸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명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가장 걸출한 수령, 회세의 정치원로이시라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 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민족을 재생시켜주시고 주체위업의 향토성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으며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일떠세우신데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자주적인 통일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을 온 겨레는 오늘도 조국통일의 구성,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자주시대 해외교포운동의 개척자, 총련의 창건자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삶의 운인, 자애로운 어머니이시라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으로 1955년 5월 25일 참다운 민족단체이며 동포조직인 총련을 결성하시여 재일조선인 운동을 주체의 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워주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조선인운동에 동포들의 권익옹호와 동포들에 대한 봉사복지활동, 재일동포사회의 존립과 장래가 달려있는 민족교육사업 그리고 민족성교를 위한 사업과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에 이바

지는 사업에서 반드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것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로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강령적시합을 보내주시고 총련부흥의 휘황한 실계도를 펼쳐주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시고 온갖 사랑과 은총을 다 베풀어주시는데 대해 그는 언급하였다.

총련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령적시합에서 가르치신 4대과업에 따라 모든 애국적사업에 동포제일주의를 보다 철저히 구현하여 운동의 미래가 비껴있음을 명심하고 어머니조국의 힘찬 발걸음을 보복을 맞추어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하여, 조국과 총련의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일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강연회에서는 료화강연편집물 《후대들을 위해 바치신 숭고한 한평생》이 상영되었다. 강연참가자들은 동포자녀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 맑은 눈동자에 총련과 재일조선인 운동의 미래가 비껴있음을 명심하고 어머니조국의 힘찬 발걸음을 보복을 맞추어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하여, 조국과 총련의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일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경축 행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진행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11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15일 중국에서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과 산하조직대표들,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영사관 일군

단체 대표들과 인사들, 중국 조선총기업가협회를 비롯한 로닝성과 김림성의 각계층 재중 동포단체 대표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김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에 재중동포단체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삼가 인사를 드렸다.

이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11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보고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주악으로 끝났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11돐경축 중앙강연회가 이날 총련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강연회에서는 료화강연편집물 《후대들을 위해 바치신 숭고한 한평생》이 상영되었다. 강연참가자들은 동포자녀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 맑은 눈동자에 총련과 재일조선인 운동의 미래가 비껴있음을 명심하고 어머니조국의 힘찬 발걸음을 보복을 맞추어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하여, 조국과 총련의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일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보고자는 조국인민들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실현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세번째 해인 올해를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이로세겨질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어머니수령님의 고귀한 혁명력사가 깃들어있는 김림육문중학교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11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다리에 굳게 뭉친 천만민이 있는한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하였다.

15일 김림시 인민대국원에서 경축공연이 진행되었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합창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민족기약3중주 《사회주의 우리 농촌 좋은시구》, 녀성민요독창 《그대뻘은 처녀》, 녀성독창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 경음악 《백두의 말발굽소리》, 녀성중창 《우리를 부러워하라》, 민속무용 《소고춤》, 남성독창 《조국과 나》, 《불라는 소원》, 합창 《우리의 국가》 등의 종류들이 울렸다.

이날 태양절경축연회가 있었다.

13일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삼가 드리는 축하편지를 채택하는 모임이 중국 심양시에 있는 총련합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지부, 연변지구협회, 김림시지부, 광백현지부, 집안시지부, 할빈시지부, 단동시지부에서는 9일부터 13일까지의 사이에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다채로운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본사기자

민민의 행복과 사회주의문명이 개화만발하는 웅장화려한 새 거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대양절을 맞으며 수도 평양의 화성지구에 인민의 새 거리가 또다시 일떠서 만사함을 격동시키고있다.

시원하게 뻗어나간 대통령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선 현대적인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봉사망들이 편리하게 배치된 새 거리의 불야성은 너무도 황홀하고 눈부시다.

이 사회주의변화에서 바로 공화국의 평범한 인민들이 새 보금자리를 펴게 된것이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를 소망하여왔다.

하지만 이 지구상을 둘러보면 집이 없어 한지에서, 세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볼수 있다. 특히 남조선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에게는 집을 마련하는것이 이룰수 없는 꿈에 불과하다.

이와 대조를 이루며 공화국에서는 현대문명이 융성된 훌륭한 살림집들을 일떠세워 평범한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고있다.

지난해에 평양의 송진, 송화지구와 보통강변에 사회주의신거리, 인민의 호화주택구가 일떠서고 전국의 이르는 곳마다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일떠서 새집들이를 하였다.

올해에도 화성지구에 인민들의 행복의 보금자리, 사회주의변화가 솟아났은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애민헌신의 고귀한 결실이며 공화국의 인민대중

제일주의정치의 뚜렷한 과시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공화국의 앞길에는 아직도 큰 시련과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공화국이 강해지고 잘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적대세력들은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더욱 기세를 부리고있고 세계적 악성전염병사태는 여전히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또한 모든것이 부족하다. 하지만 인민들을 위한것이 라면 나라의 천만대부를 기울여서라도, 시련이 겁쟁이라고 하여도 반드시 실력으로 이루어놓으시려는 숭고한 인민관,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만중하를 함몰에 걸머지고 불철주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배치계획안과 조감도, 형성안 등을 일일이 보아주시고 인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평면배치, 구획배치를 잘라 주고 건축형식도 새롭게 하도록 가르쳐주시었다.

건설마감의 비중을 높여 도시미관에서 현대적인 맛을 더 잘 살릴데 대한 문제, 국책을 반영한 표어를 설치하여 거리의 정지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 모든 중앙, 상업, 편의봉사시설들을 살림집구획안에 꾸러주고 간선도로와 지선도로를 편질시켜 주민들의 편의를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몹소 하나하나 완성시켜주시는 형성안만 해도 무려 1 630여 건에 달한다.

주제111(2022)년 2월

태양궁전가 사이에 위치한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공식에 참석하시어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강력히 결연하게 될 모든 건설대상들중에서도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제일 앞서나가야 할 기본전투로 규정하시고 건설을 박력있게 추진하는 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러한 불같은 인민사랑과 헌신에 의해 평양에 사회주의변화가, 인민의 리상거리가 또 하나 일떠서게 된것이다.

하기에 화성지구의 궁궐같은 새집을 돈 환판 안대고 받아안게 될 각계군로자들은 꿈같은 현실앞에 감격과 흥분을 금치 못하며 자신들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고있다.

《이렇게 훌륭한 집을 받아안고보니 우리 제도가 제일이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이 하늘같구나 하는 생각에 잠 못이루군 합니다. 앞으로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해 이 한몸을 장그리 바쳐가겠습니다.》

《사회주의변화가, 인민이 사는 새 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것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자본주의사회 같으면야 저같은 노동자가 이런 훌륭한 새집에서 산다는것을 상상이나 할수 있었습니까? 정말이지 이 고마움을 언제나 간직하고 더 많은 집기를 생산해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인민의 리상거리를 세워주시어 우리 인민을 행복의 금방석에 앉혀주시고 오늘도 또 위대한 원수님께서 계시는 금수산

태양궁전가 사이에 위치한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공식에 참석하시어 사회주의변화를 일떠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불야성을 이룬 인민의 새 거리에 행복로운 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수령님께서 세워주시는 사회주의 우리 나라가 제일이고 더없이 소중한다는 생각이 갈마듭니다. 이 훌륭한 새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중심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 거리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 아니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진정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인민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일관시키고 위민헌신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조국땅위에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끝없이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인민사랑이 있어 이 땅우에는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들, 선경거리, 선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있다.

화성지구의 천지개벽은 만년을 박차고 상승발전의 시간대로 전진박약해나가는 공화국의 강성한 기개와 무진막강한 전력의 힘있는 실증으로 된다.

초고층, 초고층살림집들과 문화후생시설들, 공공건물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거리를 형성하는데는 많은 물적, 인적자원들이 소요된다.

또한 방대한 건설을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

뜻깊은 대양절을 맞으며 공화국에서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이 온 나라를 격동시키고있다.

겉쌓이는 시련속에서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인민의 리상거리, 사회주의변화를 일떠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러 인민이 더치는 고마움과 격정의 목소리가 4월의 하늘가에 맴아리고있다.

위민헌신의 고귀한 결정체

사회주의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하면서 살림집문제야말로 제1차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다.

우리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는 문제는 살림집문제일것이다.

오늘의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인민들의 살림집문제해결을 위해 화성지구에도 하나의 거창한 건설전역을 펼쳐주시고 불같은 헌신의 날과 날을 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만로고를 생각하니 눈물이 절로 앞선다.

우리 인민을 위대한 인민이라고 불러주시며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가장 훌륭한것으로 되게 하시려 깊이

막강한 국력을 체감하였다

해마다 온 나라 도처에서 천지개벽을 알리는 준공식들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 조국은 이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순간도 멈춤없이 힘차게 전진하고있구나 하는 자긍심에 가슴이 부풀군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평양의 화성지구에 현대적인 새 거리 소리치며 일떠서 세상을 놀래였다.

화성지구 1단계건설은 최악의 조건과 환경속에서 진행된 격렬한 대건설 전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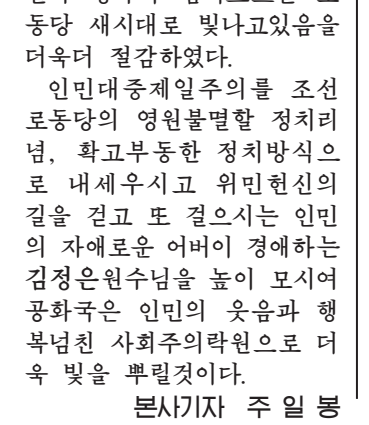
우리가 강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책동과 돌발적인 방역위기형세는 국가의

문명과 행복의 상상봉

나는 지난해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마련된 송화거리에 새집들이를 한 복판은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다.

웅장화려한 송화거리를 보면서 너무도 아름다와 꿈을 꾸는것같았는데 화성지구에 일떠선 사회주의변화를 보면서 또다시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나날이 높아가는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착상들을 대담하게 도입하여 민족적창취가 풍기면서도 시대적 신이 맥박치는 다양한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봉사망, 시설물들이 눈길을 메지 못하며 주체적



수삼나무가 전하는 이야기

로동당시대의 문명을 선행하게 보여주며 특색있게 일떠선 다락식주택들, 갖가지 진귀한 나무들과 꽃관목들을 품어안은 잔디밭, 햇빛밝은 창가마다에서 울려나오는 웃음소리...

사회주의변화가 경루통에 인민의 어머니에 대한 다함없는 품모의 열기가 새차게 끓이고있다.

이곳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몸소 심고 가꾸신 한 그루의 수삼나무가 서있다.

그 나무앞에 서면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품모와 나라와 인민을 위해 바친 로고와 심혈이 어려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는 공화국인민들이다.

한그루의 나무, 한 포기 꽃을 보아도 더욱 아름다와질 조국의 레일을 그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그 준엄한 시기에도 수삼나무를 몸소 화분에 심어 키워오셨고 전후에는 저택정원에 심으시고 온 나라에 번식시킬 가능성을 확인하시었다.

그후에는 식물학자들에게 수삼나무를 심을 지역까지 밝혀주시면서 대대적으로 번식시키도록 파업을 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빨리 자랄뿐 아니라 줄기가 굵으며 매끈하여 가로 수용으로도 제적이고 목재생산용으로도 나무말매가 없는 좋은 나무인 수삼나무가 온 나라 도처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푸른 아지를 설레이게 되었다.

진정 수령님 같은신분 세상에

의 중심에 우뚝 솟아올랐고 인민들은 한없이 궁지와 자부심에 넘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게 되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원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의하여 그리고 오늘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빛나는 현실로 꽃피고있다.

지난해 보통강변의 유서깊은 이곳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에 떠받들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회주의변화가, 인민의 존재를 망각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나는 10대의 시절에 이미 형성된 인민에 대한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을 오늘날까지 간직하지 못하였을것이며 인민에 대한 참다운 복무자가 되지 못하였을것이라고 하시며 늘 인민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그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신 위대한 수령님.

수삼나무 푸른 줄기를 두른 집, 한 나라 수령의 저택이라고 하기에 너무도 겸손한 방에서 어머니수령님께서 다른 일군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생활비를 달달이 받으시며 검박한 생활을 하시었다.

1년 365일이 로동일인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쩌다 차례지신 짧은 점심의 휴식시간마저 저택에 꾸러놓으신 시험포전에서 갖가지 농작물들을 손수 가꾸시고 누에 먹이도 주시며 인민들을 더 잘 먹이고 입히시려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은 휴식장소가 아니라 종합농사시험장, 식물연구소, 가금연구소로 되었고 이곳에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시책들이 새라새롭게 태어났다.

이렇듯 자신을 위한것이 아니라 무엇이 다 불허하시고 오로지 나라의 번영을 위해, 인민을 남부럽지 않게 잘 입히고 잘 먹이기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시였기에 이 나라는 존엄높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형성

인가를 온넉으로 절감하게 되었고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서는 그이 계시어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될 휘황한 래일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되었다.

사연깊은 경루통의 수삼나무,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또 한번의 년륜을 새긴 수삼나무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원의 성스러운 한평생을 전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의 세계를 전하여주며 끝없이 설레이고있다.

본사기자 김철

의사의 첫 물음을 두고

얼마전 나는 이발치료를 받기 위해 류정치과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외형도 아담했지만 내부는 더 정갈하고 희한했다.

군진마냥 정교하고 리 한결없이 수평적인 이민위원의 성스러운 한평생을 전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의 세계를 전하여주며 끝없이 설레이고있다.

본사기자 김철



공화국의 총대력사가 새겨주는 진리



어언 91년이 흘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셨던 아버님께서 물려받으신 두 자루의 권총을 밀천으로 조신의 진정한 첫 주체적혁명무력인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지금도 소사화등판에서 서로 서로 열싸안으며 터치고터치던 유격대원들의 감격의 환호성이 들려오는것만 같다. 그날의 무장대오가 오늘날 친화무적의 최정예혁명군으로 자라났다.

91년!

이는 반만년민족사에 비하면 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나날은 조신의 무진막강한 힘이 어떻게 마련되고 다져졌는가를 보여주는 자랑차고 긍지높은 력정이었다. 지구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공화국과 같이 자기의 행로에 승리와 영광의 자욱만을 새겨 온 나라는 없다.

다 아바와 같이 주체15(1926)년 6월 5일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림종을 알두시고 사랑하는 자제분들에게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라와 민족의 몸이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뼈가 부서지고 몸이 쪼개지는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유언과 함께 지원의 사상, 3대각오, 동지회독에 대한 사상, 두자루의 권총을 유산으로 넘겨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은 억만금의 재부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유산이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나라의 독립을 외세의 힘을 빌어서가 아니라 민족이 총칼을 들고 일어나 싸워 이룩해야 한다는 자력독립의 정신, 총대로 착

취사회를 때려부시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세상을 세우야 한다는 무산혁명에 관한 사상을 이 두자루의 권총에 담아 수령님께 물려주시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초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했던 우리 민족이었다.

당시 일본이 6 000t급이상의 최신군함만도 12척에 현대적무장을 갖춘 20만명의 방대한 육군상비무력을 가지고있었다면 조선군대의 병력수는 서울에 2개 연대 5 000명과 지방에 8개 대대 약 2 000명을 합쳐 7 000명정도에 불과했다. 군대의 기본무장장비도 창과 활, 화승대였다.

20만명 대 7 000명. 대포 대 화승총.

이것이 1905년당시 일본과 조선의 군력실태였다. 이런 군력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는가.

20세기초 망국조선이 터뜨린 원한의 통곡소리는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의 신세가 된 겨레의 곡성이고 눈물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을 역세게 물어 쥐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항일대전의 길에 나서시었다.

항일대전의 첫걸음을 떼시던 력사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두자루의 권총을 높이 추켜드시고 《자,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유산이다. ...아버지의 총적인 지향은 무장투쟁을 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이 두자루의 권총을 물려받을 때 아버지가 지향했던것을 내가 대신하여 실현시키고야말리라 하는 결심을 굳게 다지었다. 이 제는 때가 되었다. 이 두자루

를 밀천으로 삼아 독립행군을 시작해보자.》라고 힘있게 선언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지금은 이 두자루가 전부이지만 이것이 새끼를 치고 또 쳐서 200자루, 2 000자루, 2만자루로 될 날을 생각해보라. 총 2 000자루만 있으면 능히 나라를 해방할 수 있다는 참으로 의미깊은 교시를 하시었다.

이렇게 두자루의 권총을 밀천으로 삼아 항일대전을 선포한 주체적혁명무력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간악무도한 일제를 때려부시고 마침내 이 땅에 해방의 아침을 안아왔다.

피흘려 찾은 조국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려면 총대가 강해야 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을 위해 하여야 할 일이 많았지만 주체적인 병기공업부터 창설해주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조국수호의 총대를 역세게 버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침략자미제를 라승하는 전승신화를 창조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국이 반공화국침략책동에 광분하고 현대수정주의자들이 《평화적공존》을 떠들던 때에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방향을 제시하시고 자위적 군력을 더욱 역적으로 다져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화발전시켜주신 자위의 군력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었다.

지금도 이 땅의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준엄

한 나날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왔는가를 후대들도 알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군력강화의 멀고 험한 길을 앞장에서 헤쳐가시던 위대한 령장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낮이나 밤이나 이어가시던 선군혁명령도의 그 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총대가 약하면 사랑하는 인민의 운명을 지켜낼수 없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할수 없다는 력사의 진리를 새기시며 불면불휴의 로고로 자위의 군력을 최대로 다져주시어 공화국을 세계적인 우주강국,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세워주시었다.

오늘 공화국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무적결승의 기상을 남김없이 펼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신데 이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대담하고 완강한 공격적으로 국가핵무력건설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할데 대한 혁명적대용전력을 천명하시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지니시고 그 어떤 침략자들도 감히 날볼수 없는 최강의 절대적힘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었다.

그 나날 수소탄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용 수소탄시험에서의 련이성공과 《3.18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11월대사변》을 안아오시어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시었다.

또한 공화국전략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로-17》형의 성공적인 시험발사 등 초강력주체무기들을 개발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었고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하시어 공화국핵무력이 그 어떤 총정물로 될수 없다는 단호한 립장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시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라무원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담할것이라는 공화국정부의 절대불변의 대적의지를 천명하시었다.

일마진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방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역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가 단행되어 공화국핵무력이 도달한 높이와 위력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어제날 국력이 약해 침략자들에게 무참히 짓밟혀야 했던 조선이 오늘날은 절세위인들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 행성을 굽어보는 초대강국으로 되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쌓으신 만고불멸의 업적이다.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모시어 최강의 군력이 있고 이 땅의 평화와 인민의 존엄과 안녕, 밝은 미래가 있다.

이것이 90여년에 걸친 조선혁명의 총대력사가 새겨주는 진리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 세계가 공인한 불세출의 위인 ◎

《대원수도 탄부해마지 않는 대성의》

나라가 해방된 이듬해 여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이전 소련을 방문하시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쓰팔린은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김일성동지는 34살밖에 안되시지만 모든 문제에 대한 조예가 깊으십니다. 당신은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판단하십니다라고 하면서 그이를 동방의 빨치산장군이라고 높이 격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8(1949)년 3월 소련을 방문하시었을 때에도 쓰팔린은 수령님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위대한 영웅이신 김일성동지는 동방에서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소련을 피로써, 무장으로써 옹호해주신 참다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자이시며 공산주의자의 귀감이십니다. 소련이 오늘과 같이 평화적인 환경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할수 있는것은 친애하는 김일성동지와 같은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투쟁이 있었기때문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나와 그리고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환결같은 마음을 담아 우리모두 열렬한 박수로 친애하는 김일성동지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자는것을 제의합니다.》라고 말하며 수령님을 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쓰팔린의 상봉을 여러 차례 목격한 쓰일전쟁시기 제1국동전선군의 한 장령은 《김일성동지시야말로 세계대전을 치른 대원수도 탄부해마지 않는 대성인이시라는것을 더욱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수령님의 절세위인상에 매혹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며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공화국인민들이 다함없는 신뢰와 흠모의 마음으로 삼가 드린 고귀한 칭호는 수없이 많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인민이 삼가 드린 칭호들을 펼쳐보려고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창건 75돐 기념연회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우리의 운명과 미래에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절실한것을 모두 지켜주고 이루

절세위인께 인민이 삼가 드린 칭호 백전백승의 강철의 경장

어주는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 또한 고생을 남뉘저 떠맡는 군대, 회생을 불사하는 군대, 이것이 우리 인민군대가 피와 목숨으로 쟁취하였고 새기와 새대를 이어 지켜가야 할 고귀한 명칭들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조선인민군이 어떻게 그토록 강대하며 승리만을 떨쳐오는 것인가를 사람들은 경애하는 그의 금언속에 새겨안았다. 조선인민군을 그 어떤 침략력도 넘보지 못하는 무적결승의 힘을 지닌 최강의 군대로 키워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해쳐가신 군력

강화의 천만리를 마음속에 안으시고 혁명강군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그 어떤 세력도 공화국의 자주권, 인민의 존엄을 털갈만큼도 건드릴수 없게 자위적힘을 최강으로 다져 우리 조국을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

라로 만드시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멀고 험한 전선길, 화산길들을 끝없이 이어나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인민군은 수령의 사상과 위엄에 끝없이 충실하고 혁명적신념이 투철한 정치사상강군, 주체적인 전략전술과 대담무쌍한 공격방식, 완벽한 실전능력을 갖춘 무적의 전투대로, 불패의 무장력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무비의 담력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불가항력의 전쟁역력을 마련해주시고 주체혁명위업, 부국강병의 대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확신있게 인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최강의 절대적힘을 지닌 우리의 혁명무력이 있고 오늘의 조선이 있다.

하기에 인민들은 경애하는 그이를 《백전백승의 강철의 경장》으로 칭송하며 따르고 있다.

본사기자 리경일

|| 나라의 군력을 역적으로 다지는 길에서 ||

최대열점지역에서 진행된 화력복무훈련

주체101(2012)년 2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령도가 지적인 어느한 해안포진지에 오시었을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들의 포진지에 모신 해안포병들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순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화력복무훈련을 한번 보자고 하

시는것이 아닌가. 적자가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언제 무슨 정황이 생길지 예측할수 없었다.

군인들이 화력복무훈련을 기백있게 잘한다고 치하해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위대한 령장의 드센 배짱과 담력을 뜨겁게 절감한 군인들이었기에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필승의 신심과 용기가 넘쳤다.

다. 하여 해안포병들의 떨적의 기상이 차넘치는 속에 화력복무훈련이 진행되였다.

군인들이 화력복무훈련을 기백있게 잘한다고 치하해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위대한 령장의 드센 배짱과 담력을 뜨겁게 절감한 군인들이었기에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필승의 신심과 용기가 넘쳤다.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몇해전 1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저격병구분대들의 강하훈련을 지도하시었다.

저격병들을 태운 수송기들이 훈련장상공을 덮으며 날아오고 전투원들이 우박처럼 쏟아져내렸다.

그들의 훈련모습을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저격병들이 강하를 정말 잘한다고, 불의에 떨어질 전투명

령을 받고 생소한 지대에서 러 단장, 정치위원들이 직접 전투원들을 이끌고 능숙한 전투 동작들을 펼치는데 정말 불 믿이 있다고, 용맹스럽고 미 더운 진짜배기싸움군들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었다.

훈련과 관정을 해두 규정과 틀에만 매여달리지 말고 실천과 같은 여러가지 극악한 환경속에서 진행하여 실지 인민군부대들의 전성준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결연단련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경애하는 그이의 강령적인 말씀을 받아안으신 훈련참가자들은 인민군대를 무적결승의 강군으로 더욱 역세게 키우시려는 백두령장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새겨안았다.

본사기자



조선미술박물관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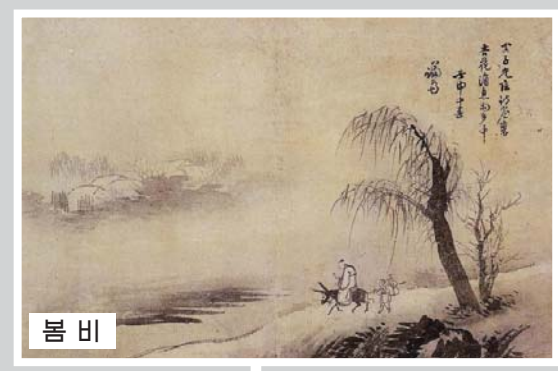
도화서의 화가들과 명화들

회화가 높은 수준에 올랐던 조선봉건왕조시기 화가들의 기량과 화법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더욱 세련되어갔다. 김홍도화가는 18세기에 그림이라는 일을 맡아보던 판청인 도화서에는 재능있고 명성높은 화가들이 적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을뿐 아니라 화법리론에도 밝았으며 뛰어난 화가들을 키워낸 정선의 작품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정선은 창작에서 아름다운 자연풍치에 주목을 돌려 풍경화분야에서 독특한 화풍을

이룩하였다고 한다. 《정선이 그린 그림 〈봄비〉입니다. 이 그림은 그가 남긴 다른 작품과는 달리 매우 서정적인것이 특징적입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그림을 보니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를 맞으며 하늘소우에 앉은 한 나그네가 강안의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며 갈길을 재촉하고있었다. 그림에는 《나그네는 시정에 잠겨 세월가는줄 몰랐지만 꽃향기와 보슬비가 봄소식을 전하누나.》라는 제화시가 쓰여있었다.



봄비



여름의 산막



소물이군

인물풍속화발전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김두량의 작품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남리》라는 김두량의 초청은 뛰어난 그림속세에 탄복하여 입금이 직접 맡아준 것이라고 한다.

그의 화법은 그림 《소물이군》에서 눈에 띄게 알렸다. 그림에는 무더운 여름날 한낮의 고된 일을 마치고 버드나무 밑에서 곤하게 자고있는 소물이군이 형성되었다. 풀이 해진 옷과 드러난 배, 햇빛에 거뿔거뿔 탄 그의 모습은 소탈하고 자유분방한 농민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있었다. 화가는 세밀한 필치로 생동하게 그려냈다.

한편 김두량의 그림 《량반과 농민》도 봉건사회의 신분적차이를 뚜렷이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짚고 하늘소우에 앉은

방반의 거만한 모습과 머리가 땅에 닿도록 깊숙이 절하는 농민, 웃음을 머금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하인 등 세련된 구도속에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심리를 능숙하게 표현한 김두량은 예술적기량이 뛰어난 화가였다.

강사는 18세기 명성높은 화가였던 심사정과 그림 《여름의 산막》에 대한 해설을 이어갔다. 정선에게서 그림을 배운 그는 기백이 넘치는 스승의 활발한 필치와는 달리 조화롭고 정교로운 필치로 자기의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해나갔고 한다. 화면에는 갖가지 나무들이 우거진 록음림은 산골짜기를 따라 맑은 물이 흐르고 기묘한 바위들이 둘러선 아늑한 한옥속에 자리잡은 다락에 앉아 글쓰는 선비의 모습이 그려져있었다. 그림은 화면구성의 치밀성과 묘사기법의 다양성으로 하여 높은 품격을 갖추고있었다. 이들의 그림들은 당시 도화서의 지위와 화원들의 재능을 잘 알수 있게 하였다.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를 내놓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는다

평화국의 교육기관들에서 나라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성과를 내놓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첨단기술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실리가 큰 초음파분산기를 개발하였다.

초음파분산기는 정공업과 화학공업, 제약공업부문 그리고 나노기술과 생물공학기술분야에서 여러가지 물질의 추출과 파쇄 등과 같은 작업에 리용할수 있는 장치이다. 과학자들은 현재까지 수십개 단위에 이 장치를 도입하여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었으며 실리가 큰 초음파분산기

을 여러 부문에 확대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내밀고있다. 평양교통신수대학에서도 교통신수부문의 현대화실현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내놓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보장하자면 운수수단들과 철길을 비롯한 철도의 전반적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에서는 운수수단들의 기술적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본중심을 두고 연구사업을 진행해나가고있다. 지난 시기의 설계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충분히 살리면서 운영조건을 고려하여 표준기술적지표들을 확정하고 그에 따르는 현재 기술적지표들을 따라세우는 방향에서 박사원생들과 학생들을 적극 인입시켜 연구사업의 폭을 보다 넓혀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두릅김치

두릅김치는 두릅에 양념장을 두고 무쳐 익혀 만든 음식이다. 두릅에는 비타민B와 C, 팽귄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의 협력작용에 의해 당분대사를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당뇨병의 치료와 예방에 좋다. 또한 두릅에는 사포닌이 있어 가래를 삭이고 기침을 멎게 하며 열내림작용도 한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본음식감으로 두릅 1kg 일 때 양념감으로 소금 50g, 생강 5g, 파 50g, 마늘 25g, 실고추 10g, 사랑가루 20g, 고추가루 80g을 준비한다. 깨끗이 손질한 두릅은 물

에 담겨서 쓴맛을 우려낸다. 파는 채치고 마늘과 생강은 다진다. 우려낸 두릅에 소금, 채친 파, 다진 마늘과 생강, 고추가루, 사랑가루, 실고추를 넣어 고루 무친 다음 단지에 두고 끓여 식힌 물을 붓는다. 3일정도 지나면 맛이 든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조선봉건왕조시기 김계휘라는 사람이 매우 총명하고 책을 빨리 읽기로 이름이 높았다. 그는 책을 볼 때에는 단번에 열줄씩 내려읽는데 한번 눈에 거치는 글자와 글 뜻을 모두 기억하였다고 한다. 그가 한번은 사신을 따라 이웃나라에 다녀온 일이 있었다. 그때 장마당을 구경하다가 여러 책방에서 보지 못한 책들이 수없이 많은것을 보고 마음이 끌리어 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그 책을 다 사자고 해도 돈이 없었고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많은 책을 가져갈수가 없어 속이 탔다.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던 끝에 그는 한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이튿날 그는 어느한 책방의 주인에게 책을 사자겠

니 속소에 실어달라라고 청했다. 그러자 책방주인은 곧 마차에 책을 한가득 실어다주었다. 김계휘는 그날 초저녁부터 초불아래서 날이 셀 때까지 한수레의 책을 다 읽었다. 그리고는 책방주인에게 가서 자기들을 인솔해온 사신이 책을 살 돈을 내줄수 없다고 하여 사지 못하게 되었고, 이 미안한대로 도로 가져가야겠다고 했다. 김계휘는 이런 방법으로 고 열줄동안 장마당에 있는 책을 몽땅 읽었다. 그후 조국에 돌아온 김계휘는 사람들끼리 이웃나라에서 읽은 책들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한 책도 빠진것이 없었거니와 한 대목도 놓친것이 없었다고 한다. 본사기자

등산놀이 (3) 글 리성덕, 그림 채대성

집에서는 언제한번 마음 놓고 터쳐보지 못하던 호들갑스러운 처녀들의 웃음도 이날만큼은 거침없이 터져나온다. 까닭없는 웃음이면 누구도 탓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니, 봄나물만이 아닌 봄과 꽃과 젊음을 안겨드리고 싶은 고운 마음이 30~40리 산길과 들길에 가득차호른다. 어슬렁이 되어서야 일행은 남문을 거쳐 마을어구에 들어섰다.

꽃은 꺾어 머리에 꽂고 나왔을 따서 잎에다 물고 나물은 캐서 바구니에 담고 새장고는 어깨에 메고 이허 등등 봄놀이가세

보배와 장치는 등무들과 덕담을 나누며 동여들 집으로 들어섰다. 마당에서 복술강아지가 뛰어나오며 꼬리를 흔들고 부엌문이 열리면서 어머니가 내다본다. 《인제야 오는구나. 그래 잘들 놀았느냐?》 《예, 잘 놀았어요. 두더리가 놀러나 지경으로 걸렸어요.》

꽃을 꺾어 머리에 꽂고 나왔을 따서 잎에다 물고 나물은 캐서 바구니에 담고 새장고는 어깨에 메고 이허 등등 봄놀이가세

장치는 빈 지개를 마당구석에 벗어놓으며 자랑하였다. 《어머니, 난 배가 터질 지경으로 꽃지짐을 먹었어요. 꽃지짐을 먹는건 봄을 먹는 거라나요.》 《오냐, 그림직한 말이로구나. 너희들은 봄을 배부르게 먹었으니 평생 봄처럼 싱싱하게 젊어살겠구나.》

부끄럼려던 처녀들도 동무들의 손목에 이끌려 일어난다. 목의홍상이라 일컫는 초

행렬들이 동대문이나 비둘기성채(성공관 뒤쪽으로 송악산을 넘는 고개)로 빠져나간다. 북성귀는 마을이나 부락거리도 하고 이웃마을과 함께 하기도 하는데 많은 때는 그 일행이 100여명쯤 넘을 때도 있고 보통 40~50명, 적어서 10여명이 모여서 떠나기도 했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모여가기도 했고 같은 직업에 종

평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문학예술인들



민요가수 왕수복

왕수복은 평양의 가난한 화전민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천성적인 맑은 목소리로 하여 이미 어릴 때 보통 학교 음악선생에게서 노래를 배웠다. 1920년대말부터는 평양가무양성소에서 가곡, 가사와 시조를 배우고 서도민요들을 익혀나갔다. 왕수복이 직업적인 가수생활을 시작한것은 10대의 에티를 아직 못벗은 1930년대 부터였다. 처음 그는 《콜롬비아》 레코드회사의 요청으로 신인가수였지만 9곡이나 되는 노래를 녹음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가요계의 물망에 올랐던 왕수복을 일약 인기가수로 끌어올린것은 《콜롬비아》 레코드회사와 《포리들》 레코드회사가 벌어진 가수경쟁전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소용돌이치는 평양과 서울의 신문들에 소

괴되었으며 이때 그가 《포리들》 레코드에 녹음한 노래 《철석날(고도의 정한)》이 나왔다. 그의 청아한 목소리와 독특한 발성이 슬베인 이 노래는 레코드와 함께 삽시에 퍼져가면서 망국의 한이 맺힌 겨레의 설움을 달래주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리면상이 창작하여 내놓은 신민요 《배죽새》는 왕수복에게 잠재되어있는 민요가수로서의 재능을 더욱 한껏 터칠수 있게 하였다. 그는 1930년대에 잡지 《삼천리》가 조직한 전조선인기가수투쟁에서 1등을 함으로써 예술계와 민간에 널리 알려졌으며 조선의 괴짜새로 이름을 날리었다. 그러나 《내선일체》를 고취하는 노래들과 친략적인 군가들만을 부를것을 강요하는 일제의 책동은 왕수복의 가슴에 찬서리만을 덧쌓아주

었으며 이로 하여 그는 그토록 사랑해온 예술계와 결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나라의 해방은 왕수복에게 재능과 희망을 참담게 꽃피워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크나큰 믿음속에 1950년대부터 국립교향악단 성악가수로 무대에 서게 된 왕수복은 처음으로 그이를 모시고 노래를 부르는 영광을 지니었다. 그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특약가수로 있으면서 흥겨운 민요들로 인민들을 사회주의 건설으로 고무추동하는 공연을 힘차게 벌려나갔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그가 말년에도 민족음악발전의 길에서 보람찬 삶을 누려갈수 있도록 은정어린 사랑을 돌려주시였으며 《왕수복 민요특약회》를 열도록 해주셨다. 본사기자

우수한 평양문화어

언어를 떠나서 인간생활은 이루어질수 없으며 사람들의 호상관계도 언어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사람들의 사상 감정과 수양정도가 말과 행동에서 표현되는것만 큼 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분명하게 해나가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수한 조선의 말과 글을 적극 살려쓰는데서 중요한것은 평양문화어를 기준으로 쓰는것이다. 평양문화어에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지향과 요구가 담겨져있고 민족의 넋과 정기가 빛나고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언어와도 견줄수 없이 우수한 평양문화어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랑이며 긍지이다.

평양문화어는 말소리가 아름답고 어휘와 표현이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짜임고고 문체도 세련되어있다. 또한 평양문화어는 법의 법칙을 독특히 나타낼수 있고 그 표현도 여러가지이다. 옷사람과 아레사람을 대할 때 쓰는 말이 명백히 구분되어있으며 부부사이와 형제, 동무들사이에서 스텝없이 나누는 말도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또한 듣기에도 유순하고 다정다감한 감정이 질이 사람들과의 의리를 깊이하는데도

순색이 없다. 오늘 평양문화어는 주제적이고 민족적인 특성이 살아나는 언어로 더욱 발전하고 있다. 본사기자



사화

행렬들이 동대문이나 비둘기성채(성공관 뒤쪽으로 송악산을 넘는 고개)로 빠져나간다. 북성귀는 마을이나 부락거리도 하고 이웃마을과 함께 하기도 하는데 많은 때는 그 일행이 100여명쯤 넘을 때도 있고 보통 40~50명, 적어서 10여명이 모여서 떠나기도 했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모여가기도 했고 같은 직업에 종

잡이군들이 풍물소리를 울리며 나가고 그뒤로는 갖가지 음식과 샷리, 천막, 술방구리를 지고인 짐꾼들과 노래부르고 술시중을 들기까지 따라선다. 등산놀이를 저들의 권세나 가세를 자랑하는 기회로 삼는 량반부자들의 북성귀행렬은 눈이 시어서 살펴볼 가치도 흥미도 없으니 침을 뱉아 지 갈래도 가라고 내버려두자. 하지만 백성들의 북성귀행렬은 차림새도 소박할뿐 아니라 등산놀이기간에 늙은이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효성하며 이웃, 친척사이에 화목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위해주는 아름다운 기풍이 활짝 꽃피어서 몸단련과 함께 마음까지 아름다워지는것이였다.



백성들의 등산놀이행렬에서는 늙은이들이 빈몸에 지팡이정도도 차림새를 간편히 하였고 나이젊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짐을 먼저 지고나섰으며 짐꾼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당한 등산놀이참가자로서 스스로 새삼을 불고 북을 치고 짐을 올리는 소임을 맡아할 뿐이였다. 백성들의 행렬에서는 늙은이와 젊은이의 구별이 없고 인문도덕상 옷사람과 아레사람이 있을뿐 빈부의 차이나 벼슬의 높낮음 같은것이 없기때문에 서로 돕고 위해주는 혼 혼한 인정만이 뜨겁게 흘러넘치는것이였다.

한 날이였다. 무시술사람들이 북성귀등산놀이에 떨쳐나섰다. 산과 들은 붉고 누른 단풍에 물들고 황금나락이 영글어가는 들판에서는 선들바람이 불었다. 하늘이 높아지고 말이 살진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였다. 이때쯤이 되면 거의 매일 이따실이 북성귀등산놀이 긴

사하는 사람들과 같은 서당 출신의 사람들이 같은 관청에 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뜻이 맞는 술친구들끼리 가기도 했다. 빈부귀천, 남녀로소의 차별이 없는 등산놀이 같아보이지만 량반부자들은 차림새부터 달랐다. 권세있는 량반부자들은 사인교에 올라앉아 전후좌우에 수많은 시중군들을 거느리고 나서는데 맨앞에는 7~8명의